

【특 집】

‘대륙문학’의 기획과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

천 춘 화*

┃ 차 례 ┃

- I. 시작하며
- II. 문인동원체제와 『조선일보』의 ‘대륙문학’의 기획
- III. ‘대륙개척문학’과 『대지의 아들』
- IV. ‘개척정신’의 변용과 ‘만주 명랑’의 강박
- V. 맺으며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일보』에서 ‘대륙문학’으로 기획한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이 사실은 식민지말기 집중적으로 생성된 ‘대륙개척문학’의 한 양상이었음을 살펴보았다. 비록 ‘대륙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기획되었지만 그것은 ‘대륙개척문학’을 지칭하는 또 다른 별칭일 뿐이었다. ‘대륙개척문학’은 ‘생산문학’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말기 국책문학의 하위 장르의 하나였고 주로 1938~1942년 ‘농민문학간화회’와 ‘대륙개척문예간화회’의 회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 『조선일보』가 이와 같은 기획을 진행하였던 것은 당시 ‘펜 부대’를 시작으로 하는 문인총동원체제와 일본에 의해 주도되었던 새로운 만주이민정책의 시행이 시기적으로 조응하면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던 ‘만주 개척’에 대한 관심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대지의 아들』은 소재나 구성, 인물형상의 부각 등 몇몇 면에서는 ‘대륙개척문학’의 형식과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만 ‘개척문학’의 중요한 이념이었던 ‘개척정신’과 ‘만주 명랑’을 서사화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 이는 작가 이기영이 ‘대륙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강사.

문학'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내면화하는 데에는 협조적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렇듯 『대지의 아들』은 '기획소설'이라는 외적인 압력과 그 문학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작가의 내적인 갈등 사이에서 길항하면서 생성된 텍스트였다. 동시에 이 작품은 식민지말기 '만주 개척'의 의미를 다시 천착해 볼 필요가 있음을, 특히 194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생성되었던 만주 재현 문학을 '개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읽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기획소설, 대륙개척문학, 펜 부대, 개척민, 개척정신, 만주 명랑

I. 시작하며

1939년 8월 18일, 이기영은 만주 기행을 떠난다. 이번 여행은 만주 조선 인 농촌 시찰이 주목적이었고 한 달여의¹⁾ 만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기영은 「만주견문-대지의 아들」을 찾아, 『조선일보』, 1939. 9.26-10.3), 「國境의 圖們-만주소감」(『문장』, 1939.11), 「만주와 농민문학」(『인문평론』, 1939.11) 등 일련의 평론과 기행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조선일보』에 「만주개척민소설」 『대지의 아들』(1939.10.12-1940.6.1)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만주에서 펼쳐지는 조선 이주민들의 정착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는 『대지의 아들』은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가 생산소설적 성격에 주목한 연구이다. 『대지의 아들』은 이상경에 의해 처음으로 생산소설²⁾로 평가되었고, 이어 이경재에 의해 이기영 생산소설의

1) 이기영의 만주 기행 기간에 대해서는 2주가량, 20여 일 등 여러 주장이 있지만 본인의 다음과 같은 고백에 따르면 한 달을 넘긴 것으로 기록된다. “처음 서울을떠날때에는 월수있는데로 이십여일동안에 온여정을 마치려하였었는데 한달이 넘고말았습니다”(이기영, 1939. 9. 24, 「生活의 創造와 奮闘를보았소」, 「大陸文學의첫烽火! (民村 李箕永 作)/大地的 아들/滿洲는기름저가고……/여기“開拓者의生活”이있다!新聞小說界의 初有巨篇來月부터本紙連載」, 『조선일보』).

2) 생산문학(소설)은 식민지말기 국책문학의 하위 장르로 생성된 문학의 한 양식이다. 처음 일본에서 국책인 '생산확충'에 관련하여 이름 붙여진 것이었고 주로 생산면을 강조, 확대

가장 큰 특징으로 생산력주의가 주목되었다.³⁾ 이와 같은 연구는 식민지말기 생산문학에 대한 세밀하고 진일보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는 2000년대 들어 시작된 친일문학논의의 장 안에서 이루어진 만주 연구의 일환으로 생성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식민지말기 만주국이라는 공간에 주목하게 되면서 작품을 읽는 중요한 기준은 자연스럽게 만주 공간에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 양상에 대한 고찰로 이어졌다. 지배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였느냐 우회하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협력과 저항의 사이에 놓이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다소 도식적인 접근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김성경⁴⁾은 『대지의 아들』은 오죽협화의 이상이 직분의 윤리와 조선인의 장자 의식에 기반을 두고 서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만주국의 장자 의식’은 일본의 가족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서영인⁵⁾은 조선민족만의 상상적 공동체의 구축을 통해 만주국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도 불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원동⁶⁾ 역시 이와 비슷한 주장이다. 식민지말기 만주 기행 이후 달라진 이기영 소설의 서사는 때로는 제국주의 담론이 정한 한계 속에서 그 담론과 타협하면서, 때로는 제국주의 담론이 가진 틈새의 균열을 활용하면서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만주 자체가 ‘균열’의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장성

하려는 목적으로 쓰였다. 이것이 최재서, 임화 등에 의해 국내에 소개되었고 그것은 다시 생산력과 생산관계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두 종류로 대별되었다. 최재서는 생산관계보다는 생산력의 발전만을 문제제기한 경우였고 이에 반해 임화는 생산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산관계의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 경우였다(이경재, 2010, 『일제말기 생산소설의 정치적 성격 연구』, 『한중일문학연구』 29, 203~204쪽).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은 생산관계는 도외시되고 생산력의 발전만이 문제가 되고, 생산력 발전과 관련된 문제가 소설 구성의 중심 갈등을 이루는 작품, 즉 생산력에 치우쳤던 작품으로 평가되었다(이상경, 1994, 『이기영, 시대와 문학』, 풀빛, 286~299쪽).

3) 이경재, 2009, 『일제말기 이기영 소설에 나타난 생산력주의』, 『민족문학사연구』 24.

4) 김성경, 2004, 『인종적 타자의식의 그늘』, 『민족문학사연구』 24.

5) 서영인, 2009, 『만주서사와 반식민의 상상적 공동체』, 『우리말글』 46.

6) 이원동, 2007, 『만주 담론과 이기영 소설의 변화』, 『어문학』 97.

규⁷⁾는 표면적 층위에서의 수용과 내적인 층위에서의 저항으로 해석한다. 즉 표면적인 층위에서는 파시즘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텍스트에 구한말 민족운동의 표상을 표기함으로써 우회적인 글쓰기를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지의 아들』을 새롭게 읽고자 한 시도들이 세 번째 범주에 드는 연구들이다. 『대지의 아들』이 드러내고 있는 농본주의를 루이스 영(Louise Young)의 개념을 끌어와 “재발명된 농본주의⁸⁾”로 해석하거나 『대지의 아들』을 포함한 일제 말기 농민문학을 통해 일본 농본주의의 영향과 전유 양상을 고찰한 연구들이다.⁹⁾ 이러한 연구들은 텍스트 외적인 요소들을 참조하여 텍스트가 놓인 맥락을 천착한 글들이다. 이상경¹⁰⁾의 최근 연구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 놓인다. 그는 『대지의 아들』이 조선일보사의 ‘기획소설’이었음을 설명하면서 소설이 어떻게 강요된 국책을 우회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대지의 아들』이 ‘기획소설’이었다는, 그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본고 역시 『대지의 아들』이 ‘기획소설’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지만 기획적 측면보다는 이 소설이 ‘대륙문학’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대륙문학’의 생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대륙문학’이 사실은 식민지말기 국책문학의 하위 장르의 하나로 생성되었던 ‘대륙개척문학’을 지칭하는 별칭이었음을 밝혀내고 다음으로 『대지의 아들』이 지니는 ‘대륙개척문학’적 요소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시기 ‘개척’이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었음에 주목하여 식민지말기, 특히 40년대 초기 집중적으로 생성되었던 만주 재현 문학을 ‘개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읽을 필요

7) 장성규, 2007, 『일제말기 카프 작가들의 만주 형상화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21.
 8) 와타나베 나오키, 2007,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과 ‘만주’: ‘협화’의 서사와 ‘재발명된 농본주의’』, 『한국문학연구』 33.
 9) 차성연, 2015, 『일제 말기 농촌/농민문학에 나타난 일본 농본주의의 영향과 전유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6.
 10) 이상경, 2016, 『‘기획소설’과 생산소설 그리고 검열: 이기영 장편소설 『대지의 아들』론』, 『현대소설연구』 62.

가 있음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II. 문인동원체제와 『조선일보』의 ‘대륙문학’의 기획

『조선일보』의 『대지의 아들』의 기획과정은 당시 『조선일보』가 얼마나 말 빠르게 ‘만주열’에 편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만주열’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¹¹⁾ 식민지말기 조선문단에 나타난 ‘만주열’은 그야말로 뚜렷한 하나의 조류였고 현상이었다. 하지만 만주가 이 시기에 와서 갑작스럽게 부상하였던 것은 아니고 만주국의 건국을 시점으로 하여 193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만주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만주로 간다』 이 말이 滿洲事變前엔 朝鮮서 쫓겨가는 불상한 農民들의 박아지름께차고 보따리뜰든 초라한 模樣을 聯想했지만 滿洲建國以來 六年의 歲月이 흐른 今日에 있어서는 滿洲로간다는 말이 「일을하러가고 希望을갖고간다」고 할수있게끔 되었다.”¹²⁾라는 함대훈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만주는 더 이상 피난처, 도피처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혹은 이룰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이태준의 「만주이민부락 견문기」(『조선일보』, 1938.4.8-4.21)를 선두로하여 임학수의 「北支見聞」(『문장』, 1939.7-9), 안순용의 「北滿巡旅記」(『조선일보』, 1940.2.28-3.2) 등 다수의 기행문과 방문기가 발표되었고, 잡지 『조광』은 1939년 7월호에 “만주문제특집”¹³⁾을 마련하여 만주의 역사, 만주 조선인의 정치, 경제, 생활 풍습 등 다방면의 만주를 소개하고 있다.¹⁴⁾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만주는 이미 하나의

11) 이상경, 2016, 위의 글.

12) 咸大勳, 1939. 7, 「滿洲問題特輯: 南北滿洲遍踏記」, 『조광』, 72쪽.

13) 만주문제특집은 李瑄根의 「滿洲와 朝鮮: 歷史的認識의 새로운 檢討」, 申基碩의 「在滿朝鮮人 金融機關의 現勢」, 李雲谷의 「鮮系: 滿洲生活斷想」, 李台雨의 「滿洲生活斷想」, 孔漢의 「무엇이 그리워 滿洲를 다니는가?」, 咸大勳의 「南北滿洲遍踏記」 등으로 구성되었다.

14) 『조광』은 「編輯後記」를 통해 “이번號는 特別 時事와 滿洲特輯을 했다. 이는 朝光이 時勢에 順應하고 時局을 잘 認識하고 나아가 大衆을 指導啓發하는것을 表徵하고도 남음이있

시국이고 시대였다. 이처럼 만주가 초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한 데에는 거시적으로 ‘동아신질저’, ‘대동아공영권’ 등과 같은 식민지 정책이 작용했겠지만 문인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식민지 종주국 일본문단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39년 3월 2일 『매일신보』에는 「文壇三氏 戰線에, 小説·詩·評論界서 各一名派遣, 期待되는 『펜』部隊活動」이라는 기사가 실린다. 이어 『동아일보』 4월 12일지는 「朝鮮文壇 펜部隊 壯行會를 開催」라는 기사를 통해 오후 네 시 반부터 부민관에서 김동인, 박영희, 임학수 세 사람을 위한 장행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5월 14일과 28일 양일에는 각각 ‘펜 부대’의 귀환 소식과 환영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¹⁵⁾ 『삼천리』 1939년 7월호에서는 경성 내의 여러 출판사와 문화인들이 천오백여원의 경비를 지원한 사실을 기사화하고 있으며¹⁶⁾, 또 「朝鮮文壇使節 特輯」¹⁷⁾을 별도로 편성하여 그 의의와 가치를 찬양하는 글을 싣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문과 잡지들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이 ‘문단사절단’이 사실은 조선문단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최초의 ‘펜 부대’였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미 많은 문인들이 전선에 동원되어 전쟁문학을 활발히 창작하고 있었다. 김동인은 이와 같은 일본 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와는 달리 당시 조선문단은 아무런 협력단체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문인들 역시 그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는 한편으로는 문단에 어떤 타격이 가해질까 두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자진해서 총독부 사회교육과를 찾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바라던 전선위문은 주선해 주지 않고 연극같은 것이나 해보라

“는것이아니냐?”라고 밝힘으로써 시국에 협조적이고자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編輯後記』, 1939. 7, 『조광』).

15) 「使命을 맞추고 펜部隊 歸還」, 1939. 5. 14, 『매일신보』.

「任務 맞치고 온 펜部隊 歡迎會」, 1939. 5. 28, 『매일신보』.

16) 「文壇使節에 千五百圓」, 1939. 7, 『삼천리』, 6쪽.

17) 「朝鮮文壇使節 特輯」, 1939. 7, 『삼천리』.

는 언질을 받는다. 실망하여 나오던 길에 이태준을 만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태준이 나서서 자금을 모아 위문단을 조직했던 것이다.¹⁸⁾ 그렇게 모금한 돈이 세 사람의 경비 밖에 되지 않았고 김동인, 박영희, 임학수가 황군위문단으로 北支那로 파견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조선문인사절단, 다시 말하자면 조선 ‘펜 부대’의 시초였다. 김동인의 회상기는 당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자발적이라고는 하나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었던 문인들과 문단의 분위기를, 시국 정세를 잘 전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중일전쟁 발발 직후부터 문인들을 戰線으로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중앙공문사를 비롯한 몇몇 출판사에서 중군 작가를 파견하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민간단체들에서 시작된 문인들의 전선행은 1938년에 이르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1938년 8월, 내각정보부는 직접 나서서 문학자와 간담회를 열고 그들이 중군할 것을 요청한다. 이리하여 9월 중순 육·해군 중군부대가 편성되어 20여 명의 문인들이 전선으로 파견되었고, 11월에는 南支 파견 ‘펜 부대’가 결성되어 출발하게 된다.¹⁹⁾ 이렇게 각처에서 직접 문인들을 소집하여 전선에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펜 부대’라는 이름이 생성된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문인동원이 시작되었고 조선 ‘펜 부대’의 결성은 이러한 일본문단을 의식한 결과였다.

‘펜 부대’의 대거 파견으로 1938,9년 사이 일본에서는 ‘전쟁문학’이 급속하게 범람하기 시작하였고 그와 함께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농민문학이었다. 이러한 시국에서 농민문학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1937년 농민문제를 소재로 한 시마키 겐사쿠(島木健作)의 『生活의 探求』, 와다 덴(和田傳)의 『沃土』, 구보 사카에(久保榮)의 『火山灰地』 등 작품들이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당시 근위내각 農相이었던 아리마 요리야스(有馬

18) 김동인, 1996, 『文壇三十年の 발자취』, 국학자료원 편, 『한국문단의 역사와 측면사』, 국학자료원, 88~92쪽.

19) 히라노 겐, 고재석·김환기 역, 2001, 『일본 쇼와 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18~222쪽.

賴寧)가 이들을 주목하게 되고 자신의 농업정책을 추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농민문학을 이용하였다. 그것이 곧 ‘농민문학간화회’의 결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1938년 10월 아리마 요리야스는 시마키 겐사쿠, 와다 덴, 와다 가쓰이치(和田勝一) 등을 초대하여 농민문학간화회를 결성할 것을 논의하고 농민문학 진흥방책으로 ‘아리마 문학상’의 설정, 총서 발행, 만주 개척 이민지 시찰 등을 중요한 항목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은 농민문학간화회의 결성은 그후에 나타나게 되는 반관반민적인 여러 단체의 결성을 촉진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대륙개척문예간화회’, ‘해양문학협회’, ‘경제문예회’ 등이었고 이로부터 파생되었던 것이 ‘대륙문학’, ‘해양문학’, ‘생산문학’ 등과 같은 국책문학들이었다.²⁰⁾

특히 척무성과 만철의 지지를 받아 1939년 1월에 새롭게 발족한 ‘대륙개척문예간화회’는 ‘농민문학간화회’와 함께 ‘대륙개척문학’을 생산해 내는 두 주요 단체가 된다. ‘대륙개척문예간화회’는 1939년 1월 대륙 개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아라키 다카시(荒木巍), 후쿠타 기요토(福田清人), 곤도 하루오(近藤春雄)를 주축으로 하여 곤도 하루오의 숙부이자 당시의 척무대신이었던 하다 요시아키(八田嘉明)의 도움을 받아 결성되었다. 정부기관의 비호 아래 발족했던 만큼 이 단체는 대륙개척에 관심이 많은 문인들을 대거 집결시켰고 당국의 협조와 지원 하에 국가사업의 완성에 협력하겠다는, 즉 “문장보국”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나섰다. 또한 ‘대륙개척문예간화회상’을 설정하고 대륙 시찰과 기행 및 대륙개척문예와 관련되는 연구회, 좌담회, 강연회의 개최에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²¹⁾

이 두 단체는 각각 ‘대륙 펜 부대’와 ‘농촌 펜 부대’를 결성하여 만주로 문인을 파견하였고 그들은 조선, 만주, 복지를 시찰하면서 조선과 만주의 문학가들과 좌담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농촌 펜 부대’로는 와다 덴과 시마

20) 히라노 겐, 2001, 앞의 책, 223~227쪽.

21) 王向遠, 2005, 『日本對我國東北地區的移民侵略及其“大陸開拓文學”』, 『“筆部隊”和侵華戰爭』, 中國北京 崑崙出版社, 50~55쪽.

키 겐사쿠가 파견되었고, 제1회 ‘대륙 펜 부대’로는 후쿠타 기요토, 곤도 하루오, 이토 세이(伊藤整),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狼),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등이, 제2회 ‘대륙 펜 부대’로는 張赫宙, 다카미 준(高見順), 이노우에 도모이치로(井上友一郎), 아라키 다카시(荒木巍), 오다 다케오(小田巖夫) 등이 파견되었다.²²⁾ 이들은 만주로 향할 때 조선을 거쳐가면서 조선의 작가들과 자리를 같이 하기도 하였다. 1939년 4월 28일자 『매일신보』에는 ‘大陸開拓 靑部隊 渡支途上 昨日入城’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잡지 『삼천리』 1939년 7월호에도 ‘大陸文藝團과 一夕遊’라는 짧은 기사를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마키 겐사쿠, 후지다 사카에(藤田榮) 등과 자리를 같이 하며 ‘대륙개척문예간화회’를 위한 환영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²³⁾ 이들이 창작한 소설들이 ‘대륙개척문학’ 일명 ‘대륙문학’, ‘개척문학’이라고하는 것이었다.

『조선일보』의 ‘대륙문학’의 기획은 이러한 시국적 배경 하에 시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륙개척문학’이 아닌 ‘대륙문학’이라고 하였던 것일까? 물론 ‘대륙개척문학’이 흔히 ‘대륙문학’ 또는 ‘개척문학’으로 불리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지의 아들』을 연재 할 때에 『조선일보』는 다시 ‘만주개척민소설’이라는 타이틀을 내건다. 사실 이 시기 ‘개척’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개척’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요한 국책의 하나였고 이 시기 ‘만주열’을 주장하였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다. 1939년 7월 2일 발표된 ‘滿洲開拓政策(大綱)’(『新京日日新聞』)은 조선 이주민도 개척민으로 귀속시킬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²⁴⁾ 즉 조선 이주민은

22) 양예선, 2007, 『일본의 만주문학: 「대륙 개척 문예 간화회」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7, 70~72쪽.

23) 『島木健作氏招待印象記』(『東洋之光』, 1939. 5)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참석자로는 文藝懇話會의 島木健作, 藤田榮과 學務局의 藤田榮, 朝鮮文壇側의 林和, 金龍濟, 毛允淑, 崔貞熙와 本社側의 金子平, 印貞植 등이 있었고, 『大陸開拓文藝懇話會歡迎會』(『東洋之光』, 1939. 6) 참석자로는 文藝懇話會의 伊藤整, 近藤春雄, 福田清人, 田郷虎雄, 田村泰次狼, 特派記者詩人 高橋新吉, 文藝評論家 白鐵, 文藝評論家 李軒求, 作家 龔鎮午, 作家 李東珪, 音樂評論家 金管, 新聞人 中重, 新聞人 須田靜夫, 綠旗聯盟 森田芳夫, 陳教論, 本社側 朴熙道, 金子平, 金龍濟 등이 있었다.

24) 『滿洲開拓政策(大綱)』, 1939. 7. 2, 『新京日日新聞』.

이제 더 이상 이민이 아닌 ‘개척민’으로 호명되어야 할 것을 요구당했다. 그리고 4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개척민 부대의 만주 파견이 기사화되고 문인들의 개척촌 시찰이 이어지면서 개척이민에 대한 모집 광고를 비롯한 일련의 관련 기사들이 신문지면을 도배하기에 이른다. 하여 이 시기에 오면 ‘개척’과 ‘이민’은 ‘협력’과 ‘저항’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²⁵⁾

『조선일보』가 ‘대륙문학’으로 기획하였던 『대지의 아들』을 ‘만주개척민 소설’로 연재하였던 것은 이와 같은 시국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자 했던 행위였다. 사실 『대지의 아들』은 조선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른 시기에 시도된 ‘개척문학’이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책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대륙문학’을 기획하였다면 작가 이기영은 시국정책에 어느 정도 편승하고 있었던 것일까?

Ⅲ. ‘대륙개척문학’과 『대지의 아들』

‘대륙개척문학’은 ‘농민문학간화회’와 ‘대륙개척문예간화회’라는 두 어용 단체에 의해 창작된 국책문학, 정확히 말하면 전쟁문학의 하위 장르의 하나였고 주로 1938~1942년에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다. 이 짧은 기간에 80여 권의 단행본이 발간되었고 대표적 작가로 후쿠타 기요토, 도쿠나가 스나오(徳永直), 유아사 카쓰에, 우치키 무라지(打木村治)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가장 환영받는 작가는 와다 덴이었다.²⁶⁾ ‘개척문학’은 몇몇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인물전기 형식을 빌어 대륙개척의 선구자를 미화하거나, 개척촌을 배경으로 하여 그들이 열악한 자연환경과 일련의 난관들을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개척’이나 ‘건설’로 미화하거나, 강렬한 노스텔지어

25) 김재용, 2007, 『일제말 한국인의 만주 인식: 만주 및 ‘만주국’을 재현한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19쪽.

26) 王向遠, 2005, 앞의 책, 55~56쪽.

를 드러내는 것 등이었다. 그 과정에 흔히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던 것이 마적의 습격과 일본군의 마적 퇴치, 중국인 농민들과의 우호협조, ‘개척청 소년의용대’ 등이었다. 하지만 우울, 비관, 불만 등 정서의 표출은 금지하고 있었다.²⁷⁾ 이렇듯 ‘대륙개척문학’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대륙개척의 성공적인 사례를 미화하고 선전함으로써 만주 개척의 희망과 전망을 펼쳐 보였고 개척 선구자를 영웅화시킴으로써 하나의 典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동시에 식민지 일본의 무한한 장래를 선전하고 식민지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만주 이주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작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명랑성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대륙문학’의 특징을 엄두에 둘 때 다음과 같은 『조선일보』의 『대지의 아들』 연재 예고는 심상치 않다.

아름답고 따뜻하고 젖과꿀이 흐르는조선, 이흠속에나서 조상의 뼈를이흠속에 무덤고 자손의 생명을 또한이흠속에서 어든조선사람이다. 이중에 고향을 떠나 매운바람에 거치른별판으로 흘러가는이들은 우선 생각하여 슬픈일이였다. 그러나 이 슬픈일속에서는 개척자의 위대한 희망이있고 새역사를 쓰는자의노력이잇섰다. 더말할것 업시거치른 만주별판이 이조선의아들들의 피와 땀속에서기름져왔고아프로도 기름져갈것이다. 이속에야말로 **결코비극적이 아니라투쟁적이고 창조적인 조선사람의 생활이 아루새겨있다.** 문학은생활을 그리는것이면서도 조선의문학은 아직이대륙을 개척하고잇는 동포의 생활을그려본일이업다. 그리하여본사에서비로소 이대륙문학의햇불을 들고 농민소설의권위민촌이기영(民村李箕永)씨의붓을 빌어 **이위대한 개척자의 『생활의투쟁』과 환희와고국을 그리는 꿈을 함께 맛보려한 것이다.** 이기영씨는 진난달 이십일 서울을 떠나 그새 한달이나걸려 만주의 촌촌에 벌려진 개척민의 생활을 친히보고 그들의 장래의설계를 들어왔고 또 지나간시대의 걸칠고 사나운꿈의 자취를 더듬고왔다. 이것이 곧 조선문단의 첫 번이오 신문소설의 압장이되는 대륙문학으로서의 『대지의 아들』이다. 이소설은 오는달초순부터 본보에 연재하게 될터이다.²⁸⁾(강조-인용자)

27) 王向遠, 2005, 위의 책, 57~61쪽.

28) 『大陸文學의 첫烽火! (民村 李箕永 作)』/大地的 아들/滿洲는기름져가고……/여기“開拓者의 생활”이있다/新聞小說界의 初有巨篇來月부터本紙連載, 1939. 9. 24, 『조선일보』.

‘대륙문학’의 중요한 키워드들이 모두 제시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비극적이 아니라 투쟁적이며 창조적”이고 “개척자의 생활의 투쟁과 환희”, “고국을 그리는 꿈” 등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대륙개척문학’의 ‘명랑성’, ‘개척’과 ‘건설’, ‘강렬한 노스텔지어’ 등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듯 『대지의 아들』은 ‘대륙개척문학’으로 기획되었던 것이 확실하고 소설 역시 어느 정도 ‘대륙개척문학’의 특징과 요소들을 수용하고 있다.

『대지의 아들』은 22개의 절에 총 158회²⁹⁾의 연재 분량을 자랑하는 꽤 긴 장편이다. 소설은 덕성이와 귀순이, 황식이의 삼각관계의 통속적인 애정서사에 마적의 침입과 물싸움이라는 두 개의 큰 사건을 삽입하여 강주사와 황건오의 지휘 아래 개양둔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황건오의 영웅적인 모습이다.

황건오는 ‘황소’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우직하고 말이 적으며 어렵고 힘든 일에는 솔선수범으로 나서는 모범적인 인물이다. 개양둔에 마적이 쳐들어왔을 때, 사건의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황건오이다. 누구보다도 먼저 현성으로 달려가 마적 토벌대에 소식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토벌대와 함께 마적을 소탕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혁혁한 공을 세운 공로자로 인정 받는다. 가뭄이 심하여 강물이 버쩍버쩍 말라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마을의 그 어느 누구하나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황건오는 이틀이나 걸리는 거리를 상류로 걸어올라가 결국 그것이 상류의 조선인 농장에서 강물을 막은 데에서 기인한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강주사와 함께 중요한 활약을 한다. 이처럼 황건오는 개양둔에 미친 두 번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29) 1. 初秋(5회), 2. 황소(7회), 3. 懷古談(5회), 4. 都市의 誘惑(18회), 5. 開陽屯(5회), 6. 生命線(7회), 7. 童心(12회), 8. 傳道大會(10회), 9. 收穫(5회), 10. 陰謀(7회), 11. 嘉非節(8회), 12. 匪賊(13회), 13. 破婚(5회), 14. 留學(6회), 15. 農事講習會(5회), 16. 旱魃(7회), 17. 治水工作(10회), 18. 忙中偷閑(4회), 19. 舉事前後(5회), 20. 密會(3회), 21. 脫出(7회), 22. 大地의 아들(4회), 이렇게 총 22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번호와 연재 회수는 필자가 편의를 위하여 표기한 것이다.

한편 황건오의 영웅화는 동시에 개양둔의 갱생의 서사이기도 하다. 만약 마적을 퇴치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기뻐를 해결하지 못해 농사를 망쳤다면 개양둔은 만주의 여느 마을과 다름없이 다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지로 모른다. 이런 면에서 황건오는 개양둔이 자라잡는 데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고 개양둔이라는 공동체를 안정적이고 단합적으로 이끄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황건오라는 인물의 영웅화는 다시 말하면 개양둔 개척의 선구자적 형상을 부각시키고 그 위상을 굳건히 하는 수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황건오의 활약과 강주사의 지휘로 개양둔은 다시 갱생의 길을 걷게 되고, 강 상류의 조선인 마을도 개양둔으로 이주하여 두 마을이 합쳐져서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대지의 아들』은 개척의 선구자인 황건오의 영웅일대기로 읽을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대지의 아들』은 ‘대륙개척문학’의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인 마적과의 투쟁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소설에서 마적 이야기는 세 차례에 걸쳐 등장한다. <생명선>이란 장에서는 이주 초기 황건오가 마적들에게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구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확>에서도 학동이의 두 형의 죽음을 통해 마적 이야기가 기록된다. 세 번째 <비적>에서 드디어 본격적인 마적 이야기가 시작된다. 개양둔에 직접 마적이 쳐들어와서 석룡이가 끌려가고 홍승구네가 재물을 털리는 사건이 무려 13회의 분량으로 기술된다. 이는 이 작품에서 <도시의 유혹>(18회) 다음으로 긴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마적 에피소드의 삽입은 본격적인 마적의 피해를 기술하기보다는 황건오의 활약을 돋보이게 하고 있으며 윤석룡이 마적에게 붙들려가면서 황망간에 아내의 속옷을 입고 간 사실이 웃음거리로 장황하게 서술되면서 <비적>장에서 펼쳐지는 마적 퇴치 과정은 지루하게 전개된다. 개척문학에서 마적 에피소드는 마적을 퇴치하고 정착에 성공하는 개척의 성공적인 사례를 부각시키는 통상적인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외에도 개양들은 추석과 같은 큰 명절 때에는 만인 부락의 왕노인을 비롯한 부락장 격의 인물들을 초대하여 친목을 다지기도 하고 기쁨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만인 부락의 중국인들과 함께 현성에 올라가 청원을 넣는 등 일련의 설정들을 통해 공존공영 혹은 단합의 힘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대지의 아들』은 만주 조선인 개척촌을 배경으로 하여 그들이 마적, 한재 등의 사회적 자연적 재난과 대항해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는 개척 사례를 성공적으로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대지의 아들』은 소설적 소재나 구성, 인물형상의 부각에서 ‘대륙개척문학’이 요구하는 요소들을 충실히 갖추려고 노력한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적인 기준으로 이 소설을 ‘대륙개척문학’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IV. ‘개척정신’의 변용과 ‘만주 명랑’의 강박

‘농민문학간화회’와 ‘대륙개척문예간화회’의 회원들에 의해 창작된 ‘대륙개척문학’은 나름의 문학적 이념을 날조해 내고 있었다. 후쿠다 기요토에 따르면 ‘대륙개척’을 주제로 하는 ‘대륙개척문학’은 시류적인 수요에 의해 갑작스럽게 생성된 문학이 아니라 그것은 일본의 『古事記』를 비롯한 일본 고전문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創造開拓精神’의 현시대적 반영이다. 또한 ‘대륙개척문학’은 일본문학에는 부재하는 ‘大陸性’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것으로 하나의 새로운 문화, 新文化를 창조함으로써 ‘興亞文學’의 발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³⁰⁾ 즉 이것은 ‘대륙개척문학’의 기원을 일본고전문학에서 찾아냄으로써 문학에서까지 일본문학의 연장으로서의 ‘만주문학’(‘대륙개척문학’), 나아가 아세아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30) 王向遠, 2005, 앞의 책, 54~55쪽.

그렇다면 조선인 농민작가에 의해 그려진 ‘대륙개척문학’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대륙개척문학’의 중요한 이념인 ‘창조개척정신’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었던 것일까?

『대지의 아들』에서 이와 같은 이념은 주로 강주사, 서치달, 황건오 등 등 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드러난다. 강주사는 한말 지사로 만주 별판을 수십 년 방황하다 어느날 불현듯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젊은 날의 뜻을 접고 정착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던 중 개양둔으로 흘러든 인물이다. 그는 이 개양둔의 지도자격 인물로서 개양둔의 대소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개양둔은 원래 이십여 년 전 김시중이라는 노인에 의해 건설되었다. 중국인들과의 마찰과 중국관현들의 부패 속에서 이십 년이란 세월을 거쳐 개양둔을 건설했지만 그가 숨을 거두자 개양둔은 그대로 황폐화의 위기를 맞는다. 그러다 황건오를 비롯한 강주사, 홍승구 등이 이주하여 들어오면서 개양둔은 다시 갱생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여기서 강주사는 김노인과 같은 세대의 인물이며 작품 속에서 그는 김노인의 분신같은 존재이다. 그는 개양둔의 前史를 현재화하는 작용을 하며 이러한 설정을 통해 과거의 집단기억을 현재화함으로써 단합된 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게 한다. 이와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개양둔 마을 어귀에 세워진 기념비를 들 수 있다. 그것은 김영감의 투쟁의 기록이고 그 과정에 함께 죽어간 젊은 사람들의 아픈 과거의 물증이기도 하다. 이 기억은 어느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개양둔 전체 사람들, 나아가 전만주의 조선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공동체의 기억이었다. 추석명절을 맞아 개양둔의 기념비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강주사는 다음과 같은 일장 연설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개양툰 사람들은 누구나 물론하고 동포의 은인이요 선구자인 그들의 유지를 본받아서 이 개양툰을 지금보다도 더욱 훌륭한 농촌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하자면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 단합하여서 마을일에 진력하는 동시에 항시의 행동에도 허랑방탕함이 없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위대한 개척민의 사명을 잊

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다만 구복을 채우기 위해서 이 황량한 만주벌판을 찾아온 것은 아니올시다. 그보다도 우리는 건설한 농민이 되기 위하여 이 동야의 대륙을 개발하는 만주국민의 한 분자로서 개척민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요 따라서 우리의 자자손손까지 이 땅위에 번영하도록 위대한 목적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은 우리도 대지의 아들이 되고 제이의 고향을 이 땅에서 찾자는 것이외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만이 아니라 그만한 포부와 실력을 역사적으로 발휘하였습니다. 우리의 선배는 만주에서 처음으로 수전을 개척한 명예스런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들 후배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포의 장래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이 김선생과 같이 지하에 묻히신 모든 선구자의 거룩한 정신을 더럽히는 이중으로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조차전패의 사이라도 결코 망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긴장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개인생활은 조금도 문제가 안됩니다. 이 넓은 땅에 아무러니 농사야 못 짓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제 한 몸이나 한 집만 생각지 말고 좀더 큰 것을 위해 살아봅시다. 적게는 이 개양툰을 위해서 크게는 개척민의 위대한 사명을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낙으로 알고 최후까지 분투로 역할기개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와 같은 경건한 마음을 내년 이때까지 변치 마시고, 각자 직업에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³¹⁾(강조-인용자)

강주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개척민으로서의 사명이다. 건설한 농민이 되어 동야대륙의 개발에 힘을 보태고 어엿한 만주국민의 한 분자가 되어 이 만주에 제2의 고향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낙으로 알고 최후까지 분투하는 역할과 기개를 가져야만 실현가능한 것이다. 간단한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개척민의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난관 앞에서도 최후까지 분투하여 대륙의 개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념이다. 이러한 사명을 신념으로 체화하기 위하여 일본은 당시 ‘개척훈련소’라는 이주민 집단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양성기관을 별도로 개설

31) 이기영, 2016, 『대지의 아들』, 이상경 편, 역락, 259쪽.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입소하는 자들은 개척국책에 부응하는 숭고한 정신과 지도자로서의 자질, 실무적인 지식을 겸비할 것을 요구 받았다.³²⁾ 그렇다면 개척국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숭고한 정신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문학적으로 재현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대지의 아들』에서 강주사의 발언을 통해 잠깐 언급되고 있듯이 그것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분투하는 정신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투는 명량한, 밝은 분위기를 기반으로 그러져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었다.

허나 그것은 在滿作家가 文學精神으로나 또 作家的技倆으로 보아 完璧에達했다는말은 아니다. 作家的 技倆에 對해서는 아래서 個人的인 批評을 通해서 論하겠거니와, 文學精神에 있어 在滿作家들은 지금까지 지녀온 作品의 色調, 즉 陰鬱性和 悽慘性を 脫却해야할 階段에 이르렀다고 본다. 陰鬱, 悽慘이 開拓史의 序幕이었고, 그들의 前史였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土臺로한 것이 在滿開拓文學의 正當한 出發이었다고할지라도 이제와서는 陰鬱, 悽慘, 이러한 色調가 時代性에 適應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나는 開拓史를 描寫함에 不當하다든가 또는 無條件의 明朗한 色調만을 갖이라 는 것은 決코 아니다. 開拓史의 記錄的인 文學的探究는 앞으로 더욱 必要하다. 그리고 無條件 明朗性이란 오히려 輕薄性を 갖여오기 쉽다. 여기서 問題는 作家的 素材를 取扱하는 精神과 氣分이다. 陰鬱하고 悽慘한 素材라도 그것을 取扱하는 作家的 精神과 氣분에 따라서는 좀더 健實한 色調를 文學 作品에 賦與할수있다고본다. 開拓民의 半世紀間의 生活은 陰鬱, 悽慘것이 이였음이 事實이나, 그것이 絶望的이 아니였음은 今日의 滿洲現實이 說明하지 않으나, 絶望的이 아닌, 健實한 氣分으로서 開拓史의 素材를 取扱한다면 必然으로 滿洲文學은 그色調를 탈피할수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하는데서

32) 개척훈련소는 올바른 개척정신을 습득하고 그것을 체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었고 이를 위해 별도의 건물을 증설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을 진행하는 1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다. 훈련소의 방침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訓練所가 表示한 方針과 目標는 다음과 같다./一. 訓練方針=滿洲國建國의 精神을體하여 開拓政策의 實踐에 邁進하고 開拓部落의 建設 및 指導에 必要한資質을 鍊磨함을 方針으로 함./二. 訓練目標/① 挺身, 滿洲國建設의 聖業 및 開拓國策에 殉하는 崇古한精神을 體得케 함./② 訓練生活의 全般을通하여 指導者다운氣魄 및 矜持를 涵養케 함./③ 農家農村經營指導에 必要한 知識技術을 習得케하여 實踐躬行의 士가되게함”(洪陽明, 1940. 3, 『朝鮮民衆과 滿洲國의 開拓: 江密峯開拓訓練所를차져』, 『삼천리』, 223쪽).

만 滿洲文學은 참으로서 開拓文學의 性格을 갖일것이다.

그리고 滿洲文學은 이제 開拓史만을 素材로 할것이아니라, 한거름 나아 가서 今日的 開拓精神을 探究하지않으면 안될階段에 이르렀다고 본다. 開拓民의 悽慘狀態에만 着眼할 것이 아니라, 開拓者들의 生産的行動과 그 精神에 着眼해야할것이다. 이것은 滿洲文學에만 아니라 現代文學이 한가지로 志向하는바이다. 特히 滿洲의 作家들은 悽慘한 生活史를 背景으로한 開拓民들의 生産的인 開拓精神과 五族協和라는 東洋的인 理念의 形成을 背景으로해서, 한낱 現代的인 人間型을 創造할수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온갖苦難에서 익여나는 不屈의 精神, 運命의 開拓을 오직 自己의 不屈의 精神에 倚把할수있는 人間, 이러한 人間型的 創造가 滿洲文學에賦與된 課題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在滿作家들은 크다란 文學精神의 轉換이 있어야할것이다.³³⁾(강조-인용자)

다소 긴 인용이지만 개척문학의 중요한 요소들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은 김오성이 재만조선인作品集 『싹트는 대지』를 평한 글의 일부분으로서 개척문학, 특히 조선인 개척문학의 요건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참고를 요한다. 그에 따르면 조선 이주민의 개척사는 “음울”하고 “처참”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작품 속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는 것은 “시대적인 분위기에 적응하지 않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만조선인 작가들은 “음울”하고 “처참”한 소재라도 그것을 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절망적인 분위기보다는 희망, 성공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건전한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개척정신을 탐구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개척정신은 “생산적인 개척정신”으로서 그것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는 정신, 운명을 개척하는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을 체득할 때에만 비로소 재만조선인문학은 개척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재만조선인 작가들에게 있어서 시급한 것은 문학정신의 대전환이었다. 이 글은 당시 ‘개척문학’의 이념이 얼마나 정확하게 홍보

33) 金牛星, 1942. 3, 『朝鮮의 開拓文學: 在滿朝鮮人作品集 『싹트는 대지』를 評함』, 『국민문학』, 20~21쪽.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필자 김오성이 또 얼마나 무비판적이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비록 1942년 3월이라는,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지의 아들』의 발표시기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명랑성은 이 시기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초기에 이미 ‘농민문학간화회’를 통해 농민문학의 중요한 요건으로 명시되고 요구된 바 있다.

널리 농촌을 배경삼아 농민의 생활을 그리는 문학이면 무엇이든 농민문학이겠지만, 요새 쓰이는 이 말은 특히 有馬 농상을 고문으로 소화 13년 10월 4일에 성립된 농민문학간화회원들의 작품을 지칭한다.

...(중략)...

이 그룹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흙에 대한 농민의 애착을 강조하는 동시에 명랑한 농촌을 그리자는 것이다. “태고의 신들과 같이 과묵하고 손이 굵은 농경인의 깊은 예지와 정서와 생활의 탐구에 있어 실체를 파악하는 동시에 그것을 시국 내지 시대와의 관련 하에 처리하여 나가는 것이 금일 농민문학의 중요한 관제라”고...(하략)³⁴⁾(강조-인용자)

최재서가 모던문학사전의 첫 항목으로 농민문학에 대해 소개하면서 ‘농민문학간화회’에 의해 주도되는 농민문학의 특징을 설명한 부분이다. 특히 강조되었던 것이 “흙에 대한 애착”과 “명랑한 농촌”을 그리는 것이었다.³⁵⁾ ‘대륙개척문학’ 역시 ‘밝은 분위기’를 필수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었고 그것이 ‘개척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였음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이와 같은 명랑성에 대한 추구는 『대지의 아들』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특히 그 명랑성에 대한 추구는 하나의 강박으로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34) 최재서, 1939. 10, 『모던문학사전: 농민문학』, 『인문평론』 1, 106~107쪽.

35) 김중옥은 식민지말기 농민문학을 ‘새로운 농민문학’으로 명명한 바 있다. 기존의 농민문학파 비교하였을 때 이 시기의 농민문학은 ‘이념성의 제거’와 ‘흙(땅)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라는 뚜렷한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농민문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작가는 이무영이었고,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 역시 동일한 맥락에 놓이는 작품이었다(김중옥, 2016, 『번역된 토착주의: 1930년대 지평에서의 필벽』, 『한국 근대문학과 중국』, 소명출판).

『대지의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명랑성은 우선 덕성이와 귀순이, 황식이 간에 벌어지는 애정의 삼각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 특히 믿음직스러운 덕성이와 당돌한 귀순이의 행동은 독자들의 읽는 재미를 더하게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작품이 드러내고 있는 ‘역지 명랑’은 희극적인 소묘의 인위적인 삽입과 개양둔이 계급적 갈등도 민족적 갈등도 무화된 공간으로 설정된 데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마적의 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학동이의 두 형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은 상세하게 서술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학동이의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빠져나간다. 어렸을 때의 개구리잡이가 그리움으로 추억되고, 개구리를 요리해 먹는 만주 이야기로 이어지다가 개구리를 어찌 먹느냐고 기겁하는 원일여의 반응에 모두들 박장대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또한 마적의 토벌 과정에서 윤석룡이 아내의 속옷을 입고 나와 웃음거리가 되었던 사실을 과장되게 그려내면서 서사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이와 같은 서사적 초점 흐리기는 물싸움의 과정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사람들이 대오를 지어 밤행군을 하는 길에 윤석룡의 일화가 다시 한 번 인용되고 강주사의 ‘운림지 전설’이 장황하게 삽입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보다는 무갈등의 공간으로서의 개양둔을 부각시킨 데에서 결정적이다. 중국인들과의 친선뿐만 아니라 물싸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 청원을 넣는 과정은 지나치게 상세하게 그려지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건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대지의 아들』의 명랑성은 연애의 서사를 통해 달성된 것이지 그것이 개척의 서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그려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은 ‘만주 명랑’에 대한 작가의 강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대지의 아들』은 ‘명랑 만주’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척정신의 부각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강주사의 연설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지는 황건오가 아들 덕성에게 하는 말, 서치달의 전도 강연 등에서도 간간히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핵심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만주에 제2의 고향을 건설해야 한다는 ‘북향정신’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향정신’이란 만주에 제2의 고향을 건설해야 된다는 이념으로서 안수길의 『북향보』(1944)를 통해 강조된 바 있다. 만주를 재현한 문학에서 ‘북향정신’은 안수길의 소설들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고에서 보듯이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미 이기영에 의해 제기되고 있었다. 강주사의 연설에 따르면 만주에 제2의 고향을 건설하는 것은 개척민의 사명이다. 하지만 이 ‘제2의 고향’, ‘대지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작가 이기영의 만주 기획의 가장 큰 감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는 만주의 농촌을 소설화하기 위하여 약간의 재료를 수집해왔다. 더구나 총총히 쓰게된 나의 이번소설이 독자의 기대에 얼마나 어그러지안홀는지 그것은 모르나 내따는 성의와 정력을 다하여 붓을들기로 약속한다.

만주는 과연 넓고 크다. 만주를 처음가보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웅대한 대륙적자연에 놀랄 것이다. 그것은 남만에서 북만으로 들어갈수록더하다. 망망한 광야는 마치무변대해와 가튼못(陸地)의 바다를 연상하게 한다.

나는 이광막한 평원에 서곡(黍穀)이 옥어진것을보았다. 다시금 전가의 근고를 생각해볼 때 인력이 또한 자연에못지안케 위대함을 느꼈다. 더욱 그것은 도처에 수전을 개척하여 석일의 황무지를 옥야로 만들어낸 백의동포의 개척사적노력을 상급(想及)할때 그러하다. 나는 찾속에서 풍염한 수전을 발견 할때마다 향토를 다시 차자온 듯 반가웠다. 수전이잇는 곳에는 반드시 백의농부가 눈에 띠었다. 나는 문득 생각하였다. 참으로 그들에게야말로 만주는 『제이의 고향』이 될수잇고 그들이야말로 『대지의 아들』이나니야고.³⁶(강조-인용자)

만주를 기행하면서, 만주의 광야를 달리는 기차 속에서 이기영은 문득 문득 고향에 돌아온 듯한 착각을 받는다. 그것은 온전히 수전 때문이었고 수전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조선인들 덕분이었다. 이는 작가로 하여금 만주를 조선으로 착각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제2의 고향으로 손색이 없다는

36) 이기영, 1939. 10. 5, 『作家的 말-近日連載/百萬開拓民의 血汗記/大地的 아들/農民小説의 第一人者 李箕永氏 執筆』, 『조선일보』.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저변에는 만주 수전을 개발한 조선인들의 공로는 인정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조선인의 권리주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기영에게 있어서 ‘북향정신’은 만주 기행의 궁극적인 도달점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지의 아들』은 ‘대륙개척문학’으로 기획되어 적극적으로 그에 부응하고자 했지만 그 개척정신을 내면화하지는 않고 있다. 그것은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이념성의 제거에서도 잘 드러난다.

금천(金川): 대사하 습격 때 일을 얘기하지요. 그게 잊히지도 않습니다. 康德 6년 8월 스물나흘날 아침인데 나무 해오다가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총소리에 쫓겨 집계 숨어 있는데 그저 사방에서 대고 총소리가 콩 볶듯 하는군요. 얼마 있더니 비적이 막 쓰러 들어와서 경찰서를 습격하는데 그 때 자위단 두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도에서 토벌대가 올 때까지 한 서너시간가량은 비적들이 그저 함부로 불지르고 총질이로군요. **만척하고 경찰서에 불을 질러서 경찰서 절반 이상이 그때 타버렸지요.** 지금 기우제 지낸 그 촌公所 앞 넓은 마당이 그때 경찰서랍니다. (그 광장 한 옆에 그 당시의 희생자의 기념비가 서 있다.) 군대가 온다니까 비적들이 남북문으로 몰려 나가는데 상점이란 상점은 다 털어가고, 집에 있는 것은 의복, 식량할 것 없이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짐꾼도 몇십명 데려 갔는데 참 그 사람들은 죽을 고비 많이 넘었답니다.³⁷⁾(강조-인용자)

이 부분은 1939년 8월 24일 안도현 大沙河에서 발생했던 비적의 침입에 대한 기술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安圖縣 大沙河 部落에 二百의 大匪團 來襲-日滿軍 警備隊가 擊退』이라는 제목으로 『매일신보』 1939년 8월 27일자에 기사화되었다.³⁸⁾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적들의 대사하

37) 정인택, 1942. 6. 24~27, 『개척민 부락장 현지 좌담회』, 『매일신보』(인용은 민족문학연구 소 편, 2007, 앞의 책, 52~53쪽).

38) 지난 23일 오전 여섯시쯤해야 계통을 잘 알 수 없는 비적 약 2백명이 안도현 대사하부락을 습격하여 그 부락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다고 한다. 급보를 바든 일만군경비대는 곳현장에 출동하여 대격전후에 쳐물리쳤는데 일본군측으로 전사자 2명 부상 7명을 내고 부락민측으로 전사 1명 잡혀간 사람이 6명에 달하였다고 하는바 비적측의 전사자도 만

침입의 목적이다. 물론 재물을 약탈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들의 주 목표는 만척과 경찰서를 불태우는 것이었다. 이는 이들이 그저그런 일반적인 비적이 아님을 말해준다. 비적의 침입이 발생했던 시기는 마침 이기영이 만주를 시찰하고 있던 기간이었다. 이기영은 대사하를 방문하지 않았고, 하지만 그는 만주 현지에 있었으니 마적의 침입 소식은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는 그의 글 어디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항일유격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마적이 『대지의 아들』에서는 그저 그런 줌도둑으로 재현되었을 뿐이다. 『대지의 아들』에서 비적은 굳이 비적이거나 마적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이는 비적이 그저 한낱 소재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말해주는 근거이다.

‘개척’이라는 용어에 대한 사용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 놓인다. 『대지의 아들』에서 ‘개척민’이라는 말은 유독 독자의 눈길을 끄는데 그것은 ‘개척민의 사명’, ‘개척사상’ 등과 같은 용어들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작가의 자발적인 의지는 아니다. 이런 어휘들은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서만 사용되고 작가 본인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만주 견문』에서 이기영은 ‘간도 이민’ 혹은 ‘(도문의) 조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개척민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인문평론에 발표한 『만주와 농민문학』에서 “개척민”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사정은 일변하여, 이제는 그들도 낙토를 건설하려는 개척민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나, 왕사를 회고하면, 다시금 감구지회가 없지 않다 하겠다”³⁹⁾라고 함으로써 그것이 다만 시국적인 표현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듯 『대지의 아들』은 기획된 ‘대륙문학’이었으나 진정한 ‘대륙문학’으로 거듭나기에는 실패하고자 했다. 프로파간다적인 문학을 강요당했던 시국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무이념성으로 그것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흔 모양이다. 또 맹다동(孟多洞) 이민부락에는 장총을 가진 비적 12명이 나타났으므로 방금 경비대가 출동하여 추격중이라 한다(『安圖縣 大沙河 部落에 二百의 大匪團 來襲-日滿軍 警備隊가 擊退』, 1939년 8월 27일 2면, 『매일신보』).

39) 이기영, 2016, 『만주와 농민문학』, 앞의 책, 488쪽.

V. 맺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선일보』에서 기획한 이기영의 『대지의 아들』은 식민지말기 집중적으로 생성된 ‘대륙개척문학’의 한 양상이었다. 비록 ‘대륙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기획되었지만 그것은 ‘대륙개척문학’을 지칭하는 또 다른 별칭일 뿐이었다. ‘대륙개척문학’은 ‘생산문학’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말기 국책문학의 하위 장르의 하나였고 주로 ‘농민문학간화회’와 ‘대륙개척문예간화회’의 회원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조선일보』가 이와 같은 기획을 진행하였던 것은 당시 ‘펜 부대’를 시작으로 하는 문인총동원체제와 일본에 의해 주도되었던 새로운 만주이민정책의 시행이 시기적으로 잘 조응하면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던 ‘만주 개척’에 대한 관심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대지의 아들』은 소재나 소설의 구성, 인물형상의 부각 등 몇몇 면에서는 ‘대륙개척문학’의 형식과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만 ‘개척문학’의 중요한 이념이었던 ‘개척정신’과 ‘만주 명랑’을 서사화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 이는 작가 이기영이 대륙문학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내면화하는 데에는 협조적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렇듯 『대지의 아들』은 ‘기획소설’이라는 외적인 압력과 그 문학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던 작가의 내적인 갈등 사이에서 길항하면서 생성된 텍스트였다. 동시에 이 작품은 식민지말기 ‘만주 개척’의 의미를 다시 천착해볼 필요가 있음을, 특히 4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생성되었던 만주 재현 문학을 ‘개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읽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조선일보』, 『매일신보』, 『문장』, 『인문평론』, 『국민문학』, 『삼천리』, 『조광』
국학자료원 편, 1996, 『韓國文壇의 歷史와 側面史』, 국학자료원
- 김성경, 2004, 『인종적 타자의식의 그늘: 친일문학과 국가주의』, 『민족문학사연구』
24
- 김재용, 2005,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 김중욱, 2016, 『변역된 토착주의: 1930년대 동아시아 지평에서의 필벽』, 『한국 근대
문학과 중국』, 소명출판
- 민족문학연구소 편, 2007,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 서영인, 2009, 『만주서사와 반식민의 상상적 공동체』, 『우리말글』 46
- 서영인, 2011, 『일제말기 생산소설 연구: 강요된 국책과 생활현장의 리얼리티』, 『비
평문학』 41
- 양예선, 2007, 『일본의 만주문학: ‘대륙 개척 문예 간화회’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7
- 와타나베 나오키, 2007,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학과 ‘만주’: ‘협화’의 서
사와 ‘재발명된 농본주의’』, 『한국문학연구』 33
- 王向遠, 2005, 『“筆部隊”和侵華戰爭』, 中國 北京 崑崙出版社
- 윤대석, 2006,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 이경재, 2009, 『일제말기 이기영 소설에 나타난 생산력주의』, 『민족문학사연구』 40
- 이경재, 2010, 『일제말기 생산소설의 정치적 성격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29
- 이경훈, 2003, 『만주와 친일 로맨티시즘』, 『오빠의 탄생』, 문학과 지성사
- 이기영, 2016, 『대지의 아들』, 이상경 편, 역락
- 이상경, 1994, 『이기영, 시대와 문학』, 풀빛
- 이상경, 2016, 『‘기획소설’과 생산소설 그리고 검열: 이기영 장편소설 『대지의 아들』
론』, 『현대소설연구』 62
- 이원동, 2007, 『만주 담론과 이기영 소설의 변화』, 『어문학』 97
- 장성규, 2007, 『일제말기 카프 작가들의 만주 형상화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21
- 차성연, 2015, 『일제 말기 농촌/농민문학에 나타난 일본 농본주의의 영향과 전유 양
상에 관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6

■ Abstract ■

The ‘Continent-Literature’ Project and Lee Gi-young’s
The Son of the Earth

Qian, Chun Hua (Myongji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Lee Gi-young’s *The Son of the Earth* and ‘continent exploitation literature’,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novel was a ‘continent literature’ designed by Chosun Ilbo. Chosun Ilbo proceeded with this plan, which originated from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of the literary world at a time when total mobilization systems of writers started with the ‘corps of the pen’. It was also labelled ‘continent literature’, despite clear awareness that it represented ‘continent exploitation literature’ that eclipsed the typical continental literature of that time. Therefore, Lee Gi-young’s *The Son of the Earth* was product sandwiched between external pressure as a ‘planned novel’ and the inner desires of the writer. In turn, such internal-external antipodal relationship presented several gaps in the novel’s composition, presenting several limitations on the novel as a whole.

Key words : planned novel, continent exploitation literature, corps of pen, pioneers, cultural patriotism